모든게 나로 인해 생겼으니 내 탓으로 돌리는게 우선이에요

☞ 21면에서 계속

는 자비를 베풀어 주고 그러죠.

그러니 여러분이 심사숙고해서…, 그 자동적인 오신통의 제일 중심에 숙명통이라는 컴퓨터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숙명통의 컴퓨터에 스스로, 자동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입력되는구나. 그래서 스스로 거기다가 또 맡기면 입력된 게 그냥 전체 자꾸자꾸 없어지면서 새 물로 화하는구나. 그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꾸 화해서 없어지고 없어지고 하니까 새걸로만 자꾸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 얼마나 좋은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누구든지 이러한 경험 안 해 본 분들은 이렇게 좋다고, 정말 눈물까지 흘리면서 좋다고 생각하지 못하실 겁니다, 아마.

행주좌와 관법이란

질문 우리 불자들이 공부하는 방편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염불, 참선, 간경, 기도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큰스님께서는 한마음 주인공에게 일체를 맡기는 행주좌와 관법을 일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확연히 와닿지가 않습니다. 저희 초보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자세한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우리가 말입니다, 부처님 법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행주좌와 관법이냐 하면 자기의 관법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상대가 있는 거고 세상이 벌어진 거지, 자기가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무효지. 안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기로 인해서 모두가 벌어지니까 자기부터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생산된 이 육체가 바로 화두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화두를 잡아서 해도 그게 먹혀들어 갔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왜냐. 겉돌아서요.

왜 겉도느냐. 세계를 안방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움죽거리는 모든 걸 안방에서 볼 수 있는 데다가 핑핑핑핑 돌아가는 그 머리 때문입니다. 육체가 탄생한 것도 화두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하는 것도 화두인데, 그 화두에다가 관법을 또 받아 가지고 하니까 겉돌 수밖에요. 행주좌와 관법은 시대가 요하는 겁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그럴 때는 반드시 시대를 순응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뒤를 쫓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앞장서란 거지. 불을 밝혀서 앞장서란 거지. 그렇기 때문에 행주좌와 관법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지금 쉬지 않고 지구가 돌아가는가 하면 우주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있는 게 없어요. 그런 데다가 내 이 육체 속의 자생 중생들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육체가 쉬면서 돌아갑니까? 이거 보세요. 자는 것도 자는 게 아니고 눈을 뜬 것도 뜬 게 아니에요. 보는 거, 듣는 거, 먹는 거, 하는 거, 만나는 거, 가고 오는 것이 어느 하나도 고정된 게 없어요. 그랬으니 공했지요. 내가 한 게 따로 없으니 물 한 컵을 마셔도, 아니, 더불어 같이 마신 거기 때문에 공식(共食)이죠. 보세요, 공생 · 공심 · 공용 · 공체 · 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 먹을 때, 어떤 거 할 때, 어떤 거 봤을 때, 어떤 거 움죽거렸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정한 것입니다. 일체 만물만생이 모두 같이 한마음으로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 여래지, 개별적인 하나가 깨달았다고 해서 여래가 아니에요. 개별적인 하나가 깨달으면 전체가 다 들려야만이 그것이…, 깨달은 사람이 수만 명이다 할지라도 깨달은 그 한마음 처에 같이하기 때문에 여래인 겁니다.

여러분이 배울 때 잘 배워야지, 예를 들어 처음에 피아노 배울 때 처음 배우는 거라고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삐뚤게 앉아서 해도 괜찮지. 요다음에 배워서 잘하지.' 이럭하면 안 됩니다. 앉음앉음이가 굳어져서요, 제대로 배울 수가 없죠. 그와 같이 인간도 마음의 오계에, 오계향(五戒香)에 첫째, 내 마음으로부터 다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탓으로 돌리는 것이 우선이죠. 모든 게 나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소가 언덕이 있어서 비비는 거지 언덕이 없다면 비빌 수가 없고 소가 없다면 비벼지지도 않죠.

그와 같이 인간도 내가 있어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잘했든 못했든 내 탓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잘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못했으면 '못한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잘하게 하는 것도 너밖에 없다.' 하고 거기 놔라 이런 겁니다. 이렇게 모든 생활에서 관한다 하는 것은 쉴 사이 없이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관하는 거지, 관하는 장소가 따로 있고 기도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기도라는 말을 안 합니다. 관이라고 그러죠. 기도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기도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법당에 오더라도 부처님 앞에 삼배를 올리든 일배를 올리든, 내가 부처님 앞에 한마음으로 넣고 일배를 올려도 올리고, 일어날 때는 한마음으로 나와 같이하고서 일어나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리로 가도 하나요 저리로 가도 하나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깨달을 수도 없거니와 이 진리를 파악할 수도 없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버스간에 몽땅 타고 앉아서 버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습을 녹일 수 있는 지름길

질문 주인공을 믿고 가면서도 내 습 하나 녹이기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습을 빨리 녹일 수 있는 지름길은 없을까요.

답변 지금 주인공이 모든 거 일거일동 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죠, 그냥. 그러니까 표현을 할 때 수레라고 했습니다, 수레! 수레바퀴와 같이 돌아간다. 그런데 그 수레를 누가 굴리느냐? 바로 심봉이 끼워져 있기 때문에 그 수레는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너를 돌아가게 하는 그 불성 자체 기둥을 믿어야지 어딜 믿느냐?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심봉이 바로 너의 주인이지 어디 따로 있느냐? 이런 겁니다. 주인은 주인인데 돌아가는 게 또 있으니까 '공' 이랬습니다. '주인공!' 하하하. 그래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니라' 그랬지요. '그 가운데에 바로 부처는 있느니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뿌리만 안다면 모든 싹, 이파리를 다 거기 놓기 때문에, 그냥 병도 붙을 데가 없고 또 번뇌 망상도 일어날 데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배우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 번뇌 망상이나 그런 것도 다 그 속에서 나오니까 그 속에다 되놓으면 됩니다.

이 습도 지금 입력이 돼 있거든요, 과거에 살던 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습대로 자꾸 나오고, 또 이 바깥에서 자꾸 습이 들어가죠. 그래, 그 습을 떼는 게 아니라 '녹여라' 이겁니다. 내가 그래서 컴퓨터 얘기를 하고 그 입력 얘기를 하죠. 인간은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어서 무조건 입력이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습이든지 뭐든지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거기 입력이 되거든요.

입력이 되면 입력이 되는 대로 그것이 나오는데, 마음을 내는 것은 우리가 그 입력된 거를 듣느라고 버튼 누르는 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오죠, 그게. 감겼던 게 나오죠. 나오는 거를 즉시즉시 거기다가 다시 놓게 되면, 입력을 하게 되면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앞서 입력된 거를 없애려면, 이열치열이라고 하듯이 거기다가 되놔야 된다. 즉, 몸뚱이 속에, 얼른 쉽게 말해서 생명들이, 의식들이 몽땅 들어 있어서 의식에 의해서 차례차례로 나오는데, 그것이 업보니까 말입니다. 그 나오는 것을 나오는 대로 거기다 입력을 해 보세요, 그 속에다가. 그래서 '한마음 속에서, 주인공 속에서 나온 것 주인공 속에서 해결해라.' 하고 거기다 되놔라 이겁니다.

기독교인이라 제사 안 지낸다는데

질문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큰형님이 기독교인이라 제사를 안 지낸대요. 돌아가신 분이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하느냐 하면서요. 그런데 저희는 큰스님 가르침처럼 간단하게 상 차리고 가족들이 다 함께 화목하게 지내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답변 기독교를 믿든지 가톨릭교를 믿든지, 어른들이 믿든지 형제님들이 믿든지 좋은 대로 생각하시고 좋게 사세요. 형님이면 형님 말끝에 "주처는 모두 개개인에 있으니까, 형님, 그렇게 해야 집안이 잘되지 않겠소." 하고 하든지, 또 손아래 동서면 동서대로 그럭하고, "제사는 안 지낸다, 조상들이 안 잡숫는다 하더라도 아래로는 교훈이 되고, 위로는 우리의 인연, 정성이 되니까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냇다, 봐라. 이게 뭐, 조상님들이 잡숫지 않으니 그냥 우리도 다 치워 버린다." 이럭하면 안 되죠. 자손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본 게 있어야죠. 들은 게 있고 본 게 있고 하는 걸 봤어야 되죠. 그래서 아래로 가르치는 데는 꼭 부모의 조상들을 잘, 그날을 잊지 말고 잘 챙기는 것도 교훈을 가르치는 거와 같습니다.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야 인연이 뭣인 줄 알고, 자비가 뭣인 줄 알고, 더불어 같이 사는 걸 알고, 그럼 '우리가 생시에 살아도 영령들하고 반반 섞여서 사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반반 섞여서 삽니다, 우리가. 그런데 좀 그것을 뜻을 아는 사람은 꿈에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의논이 들어오지만 그걸 냉대하는 사람 앞에는 그런 의논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저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반갑고 즐겁게 해 주세요. 그렇게 착하게 하면은 착하게 다 돌아옵니다. 모두 기독교를 믿든지 가톡릭교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제각기 다 주처는 자기한테 있어요. 어느 강당엘 가든 법당엘 들어오든 항상 주처는 자기한테 있는 거지 딴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가 자기한테 있는 거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똑바로 아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외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냥 타파가 되도록 그 아들의 재사를 지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다른 데로 태어났어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지극하게 하시니까 좋은 데로 태어나서 사는데, 어느 날만 되면 꼭 자기가 어느 집을 찾아가서 제삿밥을 먹고 온대요, 꿈에. 일년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자기가 어느 집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제삿밥을 먹고 오는데 그 하얗게 노파가 앉아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는 거를 보고 온대요.

그래서 이상스럽다 생각하고 있는데 하루는 어느 스님이 이렇게 오시니까 그걸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너의 전생의 어머니다. 너를 낳아 주신 어머니다, 전생에서. 그러니까 꿈에 갔던 길을 찾아서 그 집 가서 봐라. 그날 가 봐라." 항상 몇 해를 두고 다녔으니까 길을 잘 알죠, 꿈에 다녔으니까. 그래서 찾아가니까 정말 그런 오두막집이 있더라는 거죠. 들어가 보니까 제사상을 차려 놓고 정말 그 노파가 앉아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 집 가서 얘기를 하고 그 어머니를 모셔다가 두 어머니를 챙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태어나서 사는 것도 참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죠, 사람다웁게. 그러니까 제사를 잘 지내드려야만 된다. 그래야만이 그 밑으로도, 또 연방 뒤를 대서 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 어머니가 외아들이라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했으면 그 좋은 집 가서 태어났겠어요? 또 자기가 그 과거의 어머니로와 현재의 어머니가 같이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 하신 분들이 실천을 하신다면, 자식들에게도 연방 이렇게 실천을 하게 해 주신다면 돌에 갖다 세워 놔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 모든 것을 자기 중심, 자기 뿌리에 믿고 맡기고
> 감사하게 슬기롭게 맡기고 굴려서 맡기고 이런다면
> 다 사대로 통신이 됩니다.
> 그러면 모자라는 건 채우고 또 너무 넘치는 건 제거하면서
> 안과 밖이 다 잘 이끌어지는 것입니다.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경남 고성 대명사,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